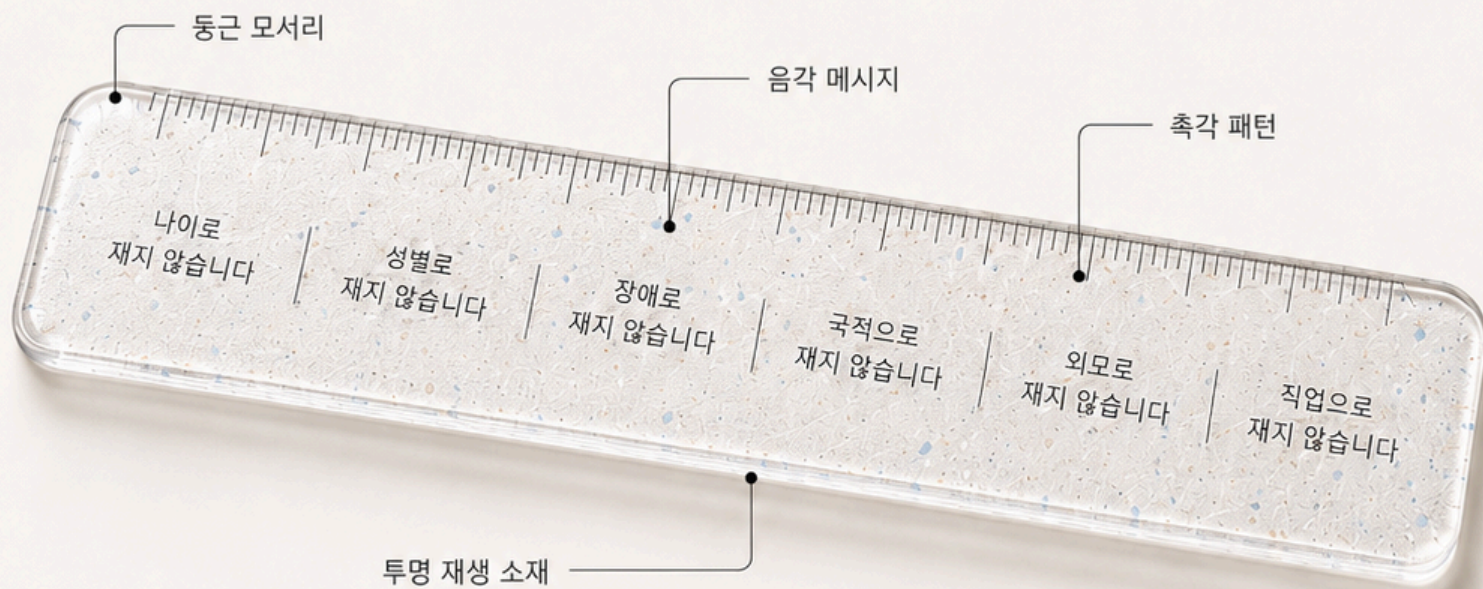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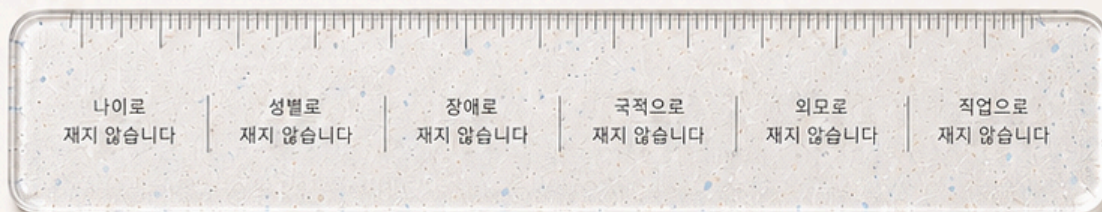
재지 않는 자

사람은 재는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는 존재입니다

기준이 아니라 존중으로 바라보는 일상 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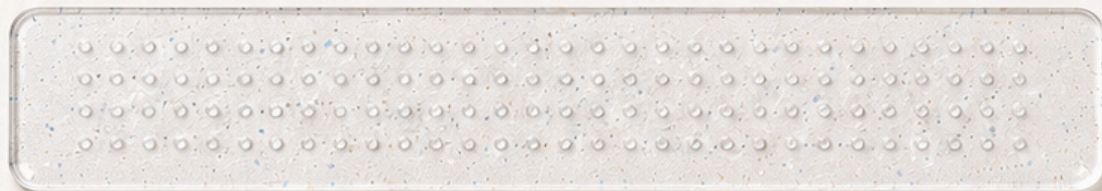
전면



측면



후면



크기 18cm × 4cm × 0.3cm



재질 재생 아크릴

분 류

☐ 액세서리 ☐ 공예품 ☐ 그림/소장품 ☐ 패션잡화 ☐ 의류 ☐ 생활소품
☒ 문구사무 ☐ 기타

작 품 명

재지 않는 자

작품크기

18cm X 4cm X 0.3cm

작품설명

‘재지 않는 자’는 사람을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상의 습관을 되돌아 보게 하는 문구사무 굿즈입니다. 자는 길이를 재는 도구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오히려 사람을 재지 말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상징적 물건으로 전환됩니다.

전면에는 일반적인 눈금과 함께 “나일로 재지 않습니다”, “성별로 재지 않습니다”, “장애로 재지 않습니다”, “국적으로 재지 않습니다”, “외모로 재지 않습니다”, “직업으로 재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음각으로 배치합니다. 사용자는 책상 위에서 자를 사용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정해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떠올리게 됩니다.

재질은 투명 재생 아크릴 또는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합니다. 투명한 소재는 서로의 존재를 가리지 않고 바라보는 태도를 의미하며, 둥근 모서리는 일상 사용 시 안전성을 높입니다. 후면에는 점자에서 착안한 촉각 패턴을 넣어 다양한 감각을 존중하는 인권 디자인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 굿즈는 학교, 사무실, 도서관, 공공기관 등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생활형 인권 굿즈입니다.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매일 손에 닿는 문구를 통해 인권존중문화가 구호에 머물지 않고 일상 속 태도로 이어지도록 제안합니다.

전면: 투명 자의 전체 형태와 음각 문구, 눈금 구성을 보여준다.

측면: 0.3cm 두께의 얇은 재생 아크릴 소재와 둥근 모서리를 보여준다.

후면: 손끝으로 느낄 수 있는 촉각 패턴과 보조 문구를 배치한다.